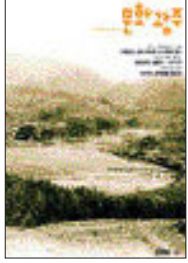


문화광주 봄호 나와

문진위 '특별봄 왜 늦어지나' 등 특집

'문화광주' 2006년 봄호가 나왔다. 광주문화예술진흥위원회(위원장 조동수)가 지난해 겨울 창간호에 이어 두번째 문화광주 봄호를 발간했다. 이번 호에서는 국회심의회에서 난항을 겪고 있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특별법'의 내용과 심의지연 이유, 제정의 필요성 등을 기획특집으로 수록했다. '사진기행'으로 1920년대부터 1950년대까지 광주의 모습을 화보로 소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광주의 뿌리를 조명하고 있다.



화보에는 비건 뒤 광주천과 경양호에서 바라본 무등산, 양림동에서 빨래하는 아낙, 뽕나무를 팔러나온 여인네 등 추억속의 사진들이 실렸다. 이와함께 초대권으로 명드는 문화예술계를 집중 조명했다. '공짜 티켓'이라는 제목이 상징하는 것처럼 전국 최고를 차지하고 있는 광주의 무료 초대권 실태와 부작용, 개선점 등 문화중심도시 광주의 또 다른 이면을 조명하고 있다. 오는 9월 개최되는 제6회 광주비엔날레와 지난 3월 문을 연 광주디자인센터, 광주문화예술진흥위원회의 모델이 되고 있는 영국예술위원회 등을 소개한다. /편집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전남 대표 가수 되세요 무등가요제 15일 KT정보통신센터서 예선

광주·전남 지역의 신인가수 발굴을 위한 '제2회 무등가요제'(주최: (사)한국문화예술진흥회 광주본부) 본선이 오는 27일 오후 2시 광주시 동구 서석동 KT정보통신센터 3층 대공연장에서 개최된다. KBS전국 노래자랑 심사위원장인 임종수 씨 등이 심사를 맡은 이번 가요제에서는 초대 가수 김해연, 배일호 씨 등 신인가수들의 축하공연도 함께 펼쳐진다. 참가자격은 가수협회증 및 레코드 취입을 하지 않은 만 18세 이상 남녀로 지역제한은 없다. 대상 1명, 금상 1명 등 총 6명의 수상자에게 상금 700만 원을 수여한다. 대상 수상자에게는 300만원의 상금과 트로피가 주어지고, 수상자는 신인 가수 육성 프로그램에 참가하게 된다. 신청서 접수는 14일까지며, 15일 오후 2시 KT정보통신센터 3층 세미나실에서 열리는 예선에서 통과한 사람에 한해 본선 진출의 기회가 주어진다. 문의 062-269-0500, 529-7700 /작성기자 ksj@kwangju.co.kr

영화 흥행 원작 대박... 출판계 '윈윈바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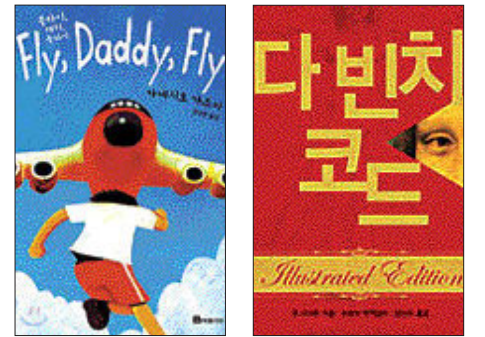


이준기, 이문식 주연 영화 '플라이 대디' 포스터.

출판계에 '윈윈바람'이 거세게 일고 있다. 문학작품을 원전으로 한 영화들이 흥행을 잇따라 성공하면서 빛을 보지 못했던 원작들이 베스트 셀러에 새롭게 등극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최근 베스트셀러 반열에 오른 소설 중에는 발간 당시에는 주목을 받지 못했던 작품들이 상당수 포함돼 영화의 위력을 실감케 하고 있다. 11일 대한출판문화협회에 따르면 재일교포 작가 가네시로 가즈키의 소설 '플라이, 대디, 플라이'(북폴리오 펴냄)는 4월 첫째주 소설 분야 베스트셀러 목록 4위에 성큼 올라섰다. 지난 2월 개정판이 나온 이 소설이 독자들의 관심을 끌기 시작한 데에는 현재 '플라이 대디'(감독 최정태)라는 타이틀로 제작중인 영화때문이다. 오는 7월 개봉 예정인 이 영화에 '왕의 남자'로 최고의 인기를 구가하고 있는 영화배우 이준기가 주인공으로 출연한다는 사실이 전해지면서 원작에 대한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북폴리오 측은 "3천부 가량 찍은 1쇄가 일주일 만에 바닥나고 서점들의 주문이 쇄도해 현재 8만부(37쇄)까지 찍은 상태"라며 "2003년 출간 당시보다 더 큰 인기를 누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 책은 지난 2월 가즈키의 신작 소설 'SPEED'가 국내에 선보이면서 그의 과거 대표작인 'GO' '레벌루션 No.3' '연애소설' 등과 함께 표지를 새롭게 단장해 나란히 개정판으로 나왔다.

영화 후광효과 소설 '플라이 대디' 베스트셀러 등극 '오만과 편견' '다빈치 코드' 화폭집 '이(爾)' 등 인기

제인 오스틴의 '오만과 편견'(민음사 펴냄)도 비슷한 사례다. 최근 국내에서 개봉한 동명 영화가 박스오피스 2위까지 오를 정도의 인기를 얻자 고전에 속하는 원작 소설도 덩달아 찾는 이가 많아졌다. 이 책은 인터넷 서점 예스24(www.yes24.com)의 종합 베스트셀러 1위에 오르는 가 하면 교보문고 인터넷 종합 3위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다. 이처럼 거의 잊혀졌던 고전이 다시 베스트셀러 목록에 끼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영화의 후광효과를 독특히 보고 본 것이다. 또 지난 2004년 6월 출간돼 수주동안 베스트셀러 1위자리를 고수했던 덴 브라운의 '다빈치 코드'(베틀스만코리아 펴냄) 역시 다음달 영화 개봉을 앞두고 현재 4월 첫째주 소설분야 베스트셀러 목록(한국출판문화협회)에 9위로 다시 모



플라이, 대디, 플라이 다빈치 코드

습을 드러냈다. 이 책은 출간 당시 기독교계의 강한 반발 등이 있었음에도 출간 뒤 베스트셀러 목록에 꾸준히 이름을 올리며 독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이에 앞서 '왕의 남자'의 원작으로 알려진 김태웅씨의 화폭집 '이(爾)'(평민사 펴냄) 역시 영화의 흥행에 힘입어 예술분야 서적으로는 이례적으로 출간 3주만에 3천부가 판매되는 등 폭발적인 호응을 얻기도 했다.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제주도의 바람과 땅과 하늘

강요배 '땅에 스민 시간'展 25일까지 광주 남봉갤러리

제주도의 화가 강요배씨가 남봉갤러리에서 12일부터 25일까지 '땅에 스민 시간'이란 제목으로 전시회를 연다. 강씨는 제주 4·3항쟁 연작으로 친숙한 작가다. 이번 전시에서는 기존 세찬 필치와 명암의 대비에서 벗어나 밝은 미색과 연분홍색 붓터치로 제주의 자연을 담았다. 이 때문에 제주도의 꽃과 나무, 새와 벌, 하늘, 땅이 흠내음과 풀내음에 섞여 따뜻하게 화폭에 담겼다. 작가는 "근작들은 색감과 필선을 부드럽게 하는 데 무게를 뒀다"며 "낙폭(명암차이)을 줄이는 게 오히려 느낌이 강해진다"는 생각이 들어 낙차를 아꼈다"고 변화를 설명한다. 4·3항쟁을 그린 '꽃비', '동백 꽃잎'은 서사적인 작품에서 벗어나 밝고 화사함으로 옮겨가고 있는 작가의 내면을 투영하고 있다. 변신은 '제주에' 정박했던 작가의 정서가 한꺼번에 풀린 듯 다채롭다. '세한송', '산수영모', '홍매'는 작가의 붓이 문인화의 고졸한 정신세계에까지 미치고 있다. '오동잎'은 오인 장승업의 필의가 배어있으며, '말구슬새'는 전통적인 화조도의 구도를 선보인다. 다분히 통속적인 작풍 대신인 꽃과 채소, 호박, 유자 등도 토속적인 질감으로 거듭난다. 게다가 제주도의 가을 하늘을 담기 위해 화면 전체를 온통 푸른 색으로 채운 '북천'은 추상과 구상의 경계를 흐림으로써, 투박한 질감을 즐겼던 작가의 화풍변화를 읽게 한다. /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



'말구슬새'

이태호 명지대 교수는 "강씨의 작업은 화면 구성이나 필치, 곧 회화적 성격에서 우리 전통문화와 교감한다"며 "이는 강요배 회화의 커다란 장점이며, 한국인의 진정한 한국화를 위한 의미있는 방향이다"고 말했다.

미술품 경매시장 호황 광주화랑가 호재? 악재?

최근 미술품 경매시장이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지만 광주 화랑가에 짙은 그림자를 남기고 있다. 11일 광주 화랑가에 따르면 국내 양대 경매회사인 서울 옥션과 K옥션이 주도하고 있는 미술품 경매 시장이 컬렉터들에게 어필하면서 광주 지역 미술시장에도 여진이 우려되고 있다. 경매는 중간상(화상)에게 커미션을 주지 않고 미술품을 구입하려는 수요자에게는 반가운 일이지만, 가뜩이나 어려운 광주 화랑가는 속이 타들어가길 일이다. 광주는 예나 지금이나 미술품 거래 시장에 관한 바깥권이다. 이 때문에 경매바람이 가뜩이나 위축된 지역 미술품 시장을 위협하는 '악성 태풍'이 될 것이라는 게 지배적인 분석이다. 사실상 광주의 유일한 상업 화랑인 나인 갤러리와 이같은 영향을 체감하고 있다. 양상찬 관장은 "단골 고객 가운데 경매 시장에서 일부 지역 작가들의 작품을 구입한 분도 있다"며 "집체된 광주 미술품 시장에 또 다른 악재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미술 시장의 덩치가 큰 서울에도 예외는 아니어서 경매시장은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이에 맞서 유명 화랑들이 대응책으로 소품들을 판매하는 이른바 '폭탄세일전'을 열기도 했다. 광주는 이같은 기획전을 가질 여력도 시장도 없는 딱한 처지다. 미술품 구입에 돈을 쓸만한 수집가들이 소수로 한정된 상황에서 작은 그림을 풍성하게 내놓아도 판매를 장담할 수 없는 실정이다. 하지만 경매 바람이 광주 미술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광주의 미술품 시장은 사실상 작래 시장의 관한 바깥권이다. 개인적인 친분이라는 '인적유통망'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같은 경향에 영향받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광주 신세계 화랑 관계자는 "광주 미술시장은 사실상 '인적 관계 시장'이라는 틀을 갖추었다 시장규모가 작기 때문에 크게 영향받지 않을 것이다"며 "그러나 중앙 주도성 경매시장은 광주시장이 어떤 형태로는 영향을 미칠 것이다"고 말했다. /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

에이플러스 부동산건설링
자산건설링의 명가 광주·전남권 토지구획
수완·신창·첨단지구 택지·상업용지 중개전문
구입상담
주유소·공장, 충전소, 골프연습장, 병원, 복지시설 등 대형사업용 부지
매도상담
대형 토지, 건물을 성실하고 신속하게 중개합니다
첨단지구 상업용지
주유소
수완택지개발지구
광주인근 녹지·사업용 부지
신창택지 개발지구
수완동 4차선 1100평
우림야
광산구 1만평, 2만평
호텔, 수익성건물
장성·담양권 물건구입
매도 매수 교환 보유분석
투자유망단지 다량 보유(0.2천원 ~ 000여원)
062)973-9177, 011-625-1382

장성의 자존심!!
삼호센트럴타워
상가 분양/임대
상담 문의 ☎ 061)393-5550
▶충별 권장업종
1층: 대형마트 / 약국 / 패션잡화관
2층: 패션 의류관 / 전자 / 가전 / 컴퓨터관 / 미용실
3층: 찜질방 / 웨딩홀 / 고급사우나
4층: 클리닉센터 / 병·의원 (이비인후과, 안과, 치과)
5층: 소연회장 / 대연회장 / 학원 / 볼링장 / 당구장
6층: 전문식당 / 레스토랑 / 성인용바 / DVD영화관 노래방 / 호프
▶방문상담환영!!(상가층)
전통있는 상권지역에서 새로운 상권을 선포하여 지역의 대표권을 전문중합 쇼퍼타워 탄생!!

NGI 국민지도
http://www.hanmap.co.kr 국민지리정보(주)
최신정보수록, 3월 도시계획고시안 확정
2006 광주광역시 지적, 임야 약도 판매중
광주광역시 책자 50% 세일 10만원
광주광역시 책자 포켓용 3만5천원
전남전지역 지번도 판매
(매장방문시 사은품 증정)
광주지사 : 062-385-0114
목포지사 : 061-284-7833
순천지사 : 061-744-0973
광주지사 위치: 쌍촌동 무진로 벼들마을앞

중앙국토개발건설링
(핸) 011-647-3500 (광주지법법원 뒷편)
상가, 점포
지산동 5층 상가, 대45평, 건110평, 일권주거지역, 20m도로, 교통양호, 1, 2, 3층 사무실, 4, 5층 주택, 매도 3억3천만원
원룸
계림동 송선관광호텔 앞 원룸, 대453, 건평 9440, 지하1층, 지상4층(원룸11개, 부엌3개)
전원주택, 별장용지
전남 나주 풍림리, 자연녹지, 8800평, 평당20만원, 조경가
싼땅매매
광주 남구 앞촌동 대촌중앙초교 건너(맹간제 옆) 개발제한, 자연녹지, 8400평, 평당20만원, 조경가
중고용 임야
장성 북이면 원덕리, 25.195평,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존구역, 차량출입용이, 계곡이 흐르고 전면에 저수지, 정바향 평당 12,000원
광주 동구 소재동, 13,083평, 자연녹지, 차량출입용이, 전기공급, 지내에 워너비 소재, 개발제한구역내 관리사잇줄, 평당12,000원
도지용 임야
화순 이십곡리, 너릿재와 검본소 사이 우측 임야, 2500평, 평당 50,000원, 조경가

GS부동산건설링
T. 572-7744, 9966 (핸) 011-607-9908 (양산동 그린리더 컨설팅팀 앞)
상가임대
1층: 약국,금연방,안경점
2층: 내과,소아과,이비인후과
3층: 안과,치과
4층: 학원,기타
양산동, 신개발지 중앙거리 코너 APT 5000여세대 밀집 지역 실권 최고
분양권매매
양산동 GS 그린리더
35평형 분양가 1억5800 3600 납부, 최상층 남향 중건리인 매매가 1억7천
49평형 분양가 2억4200 1억5천납부 17층 중건리인 남향 조망권 최고 매매가 2억6천
56평형 분양가 2억8천 2천800 납부, 풀옵션 10층 조망권 최고 매매가 2억8천8백
현진에비빌 다량 확보